2015년 1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월 22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친절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도자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기청 벤처정책과 • 과장 : 김성섭(042-481-4383) • 사무관 : 이정례(042-481-4425)
벤처기업협회 • 대외협력팀 박태근(02-6331-7070) • 정책연구팀 허영구(02-6331-7060)

벤처기업, 사상 최초 3만개 시대 개막

- 중기청·벤처기업협회, 3만 번째 벤처확인기업에 기념패 전달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지난 **1.13일(30,021개)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가 사상 최초로 3만개를 넘어섰다**고 밝혔다.

○ 중소기업청은 22일(목) 중진공이사장(임채운), 벤처기업협회장(남민우), 여성벤처협회장(이은정), 벤처캐피탈협회장(이종갑), 전문엔젤 투자자(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) 등이 참석한 가운데

○ **전문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아 3만 번째로 벤처확인을 받은 ㈜모비데이즈*(대표 유범령)에 대해 벤처확인서 및 기념패를 전달**하고 '벤처 3만 시대' 개막을 축하하였다.(사진 별도 송부)

* ㈜모비데이즈 : '14.6월 설립, 모바일 앱을 통한 광고 및 전문마케팅 대행, 전문엔젤(이택경, 류중희 등) 6명으로부터 투자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, 매출액 5억원, 고용 15명

○ 벤처기업협회는 동 기념식을 통해 ㈜모비데이즈에게 벤처기업협회 평생 회원증을 전달하였다.

□ 벤처기업은 '80년대 말 태동한 이래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0년대 초 벤처중흥기를 거쳐 양적·질적으로 지속 증가하면서 **우리경제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**를 해 왔으며,

* 벤처기업 수(개) : ('98) 2,042 → ('06) 12,218 → ('10) 24,645 → ('15.1.13) 30,021

* ('13년 총 매출액) 198.7조원으로 GDP(1,428.3조원)의 13.9%,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(68.4억원)은 중소기업 평균(28.4억원)의 2.4배

* ('13년 총고용) 72만명,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('12년 1,489만명)의 4.8%, 벤처기업 평균고용(24.7명)은 중소기업 평균('12년 3.9명)의 6.3배

○ 특히 **벤처창업으로 출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출신 기업은 642개사**('13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(3,846개)의 16.7%)나 되는 등 **벤처가 창업 → 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적 역할***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.

*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 63개, '월드클래스 300'의 74%(100개 중 74개), '히든챔피언'의 67.5%(302개 중 204개), '히든스타500'의 68.5%(305개 중 209개)

□ 이번 정부 들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넘어선 것은

○ **벤처생태계 태동 20년, 모태펀드 운영 10년**과 함께 **혁신성 있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노력**한 결과이며

○ 그간 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조성, 기술창업 촉진 등 **창조경제 구현 및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일정부분 역할**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*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('13.5),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('13.9),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('13.10),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방안('14.3), 벤처창업 규제개선 방안('14.3) 등

□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"벤처기업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**'17년 35,000개에 이르고 전체 매출액도 230조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거대기업군으로 발전**할 것"이라고 말하면서

○ 제2의 벤처 도약을 위해 벤처기반 확충*과 벤처투자 활성화** 등으로 「**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**」**정착을 지속 모색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, 벤처인정업종을 全업종(유흥·사치업 제외)으로 확대 등

** 연간 벤처펀드 2조원 조성 및 1.8조원 투자, 창업초기·선배벤처펀드 확충 등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이정례 사무관(☎ 042-481-4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